

서호인의 '소설처럼'



야만과 증오의 바이러스

-마리즈 콩테 '나, 티투바, 세일럼의 검은 마녀'

소설은 1692년 미국의 작은 마을 세일럼과 그 인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당시 유럽을 휩쓸던 마녀재판의 열기가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닿았던 것이다. 흔히 비이성적인 군중심리를 통해 무고한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마녀사냥이라고 한다. 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냥은 엄연하게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사냥과 재판이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법한 단어들은 이렇게 '마녀'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깨동무를 한다. 야만성과 합리성의 만남. 증오와 이성의 합일.

는 분노와 그 분노를 부채질하는 위선과 증오의 역사는 변함없다.

야생에서 죽지 않고 자라 다시 사회에 편입한 티투바에게 주어진 운명은 노예로서의 삶이 전부다. 어떤 백인에게는 멸시를 받지만 또 어떤 누군가와와는 우정을 나눈다. 어느 주인에게는 폭행을 당하고 또 어느 동료와는 사랑을 나눈다. 노예이지만 사람이기에 그들에게는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으며, 자유에 대한 갈구 혹은 두려움과 마주한 비겁이 있다. 티투바에게 닥치는 불운은 그녀가 흑인이거나 여성임에 기인한다. 흑인이어서 노예가 되고 흑인이기에 가혹한 폭력에 마주하게 된다. 그러한 흑인이 이야기하는 바, 삶은 남자에게 관대하다.

1692년의 마녀재판은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세일럼의 여성을 압박했다. 세라굿, 세라 오즈번, 티투바로부터 재판은 시작됐으나 그 결과는 여성 열아홉 명과 남성 한 명의 사형이었다. 재판 중이거나 복역 중에 사면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복권되어 그 기록이 남았으나 그중 유일한 흑인이었던 티투바에 대한 기록은 없다. 소설은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

로 장막에 갇힌 티투바의 삶을 해방한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노예선에서부터 바베이도스에서 있었던 도망 노예들의 반란에 이르기까지, 티투바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욕망하며 스스로 선택한다.

마녀재판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 티투바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마녀로서 취급된다. 하지만 실제야만적이었던 것은 성경에 손을 얹고 학살과 폭행을 자행한 백인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의 집을 태우고 아이들을 살해했고, 흑인 노예를 폭행하고 이에 저항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였다. 이들의 행위가 합리적인가? 그들은 마녀사냥이라는 광기를 재판이라는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신앙이라는 신성성을 인종차별이라는 폭력성으로 재구축한다. 청교도적 시스템과 규율이 얼마나 정확할지, 감옥에서 풀려난 티투바가 다시 노예가 된 이유는 감옥에서의 '숙박비'와 '쇠사슬값'과 같은 비용을 갚지 못해서이다.

이 참혹한 블랙코미디에 당시의 종교는 복무했다. 갖가지 이유로 마을의 여성

을 마른 장작 위에 올린 이들의 직함은 목사였다. 그들은 재판관이었고, 종교인이었으며, 남성이었다. 신의 가르침을 완전히 배반하는 형태로 그들은 신의 심부름꾼이 되어 더욱 잔인해졌다. 이러한 증오와 협잡에 티투바는 다소의 영적인 존재로서 맞서지만, 읽는 이에게 티투바에게 부여된 환상적 장치는, 저 거대한 폭력에 비해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티투바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2018년 대안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마리즈 콩테의 대표작 '나, 티투바, 세일럼의 검은 마녀'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오로지 현생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생의 영생을 위해 무리하고 폭력적인 선교 활동을 일삼는 게 근대의 종교는 아닐 것이다.

무엇이 사이비인가 하는 논쟁은 종교계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과 야만이 사회의 앞면에 대두될 때, 우리는 이성을 잃기 쉽다. 어쩌면 바 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지도 모른다.

社說

공천이 곧 당선? 지역 발전 공약 외면해서야

제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에서는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자신감 탓인지 경선에만 신경을 쓰는 듯하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 역시 통합에만 신경을 썼던 탓인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은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광주·전남 선거구 경선에 본격 돌입했으며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3당도 민생당으로 통합하면서 지역 구에서 민주당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일부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정당 지지율에 취하다 보니 경선에만 몰입하고 있는 듯하다.

후보 간 고소·고발이 판치는 등 혼탁 경선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공

약과 정책은 실종된 반면 비방과 고소·고발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일부 예비후보들이 상대방 흡집 내기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경선 과정에서 내놓아야 할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과 공약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민선 7기 주력 사업의 하나인 광주역 KTX투자 선도도시 등 급격한 현안 사업들을 여당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역시 4세대 원형방사광 가속기 유치 사업 등 7개 분야 36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번 4·15 총선은 지역 발전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다. 특히 광주·전남의 현안들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만큼 반드시 총선 공약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의 후보자들은 이번 총선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해 지역 발전을 이끌 공약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다.

신천지 신도 21만 명 전수조사 최대한 신속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갈수록 확산됨에 따라 신천지 교회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했다. 정부는 신천지 교회 신도 21만2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거주자별로 분류해 어제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명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대상자는 광주가 2만6000여 명, 전남이 1만4000여 명이다.

광주시는 1400명의 직원을 총동원, 직원 1인당 20여 명씩 신도들을 배분해 코로나19 증상 유무 확인을 벌이기로 했다. 질문지를 작성해 배포하고 사업소 등과 회의를 열어 확인 방법을 공유한다. 전남도 역시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 58곳에 대해 방역을 완료한 데 이어 다음달 9일까지 집회 금지와 시설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전수조사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선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왕 조사를 시작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마무리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다만 조사 방식이 전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감염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상자가 신천지 관련성을 부인할 경우 확인하는 방법도 걱정이다. 신천지 측이 제공한 명단이다 보니 자료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전수조사 대상에는 신도만 포함돼 있고 1만여 명에 달하는 광주·전남 지역 신천지 교육생은 제외됐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결국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 신천지 전수조사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이제부터라도 필요하면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전수조사에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코로나19 예방하려면



이두영 건강관리협회 내과 전문의

있다. 증상은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여 발열이 나타나고 기침과 무력감 그리고 근육통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잠복기는 3~7일이지만 최장 14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 중에도 전염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완치 판정 이후에도 재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는 일단 완치 이후에도 상당 기간 세심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1339나 지역 보건소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현재까지는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적이다. 건강 상태가 평소와 다를 때는 수건이나 겹 등 개인 생활용품 함께 쓰지 말아야 하고, 약수나 포용 등도 피해야 한다. 호흡기를 통한 전염뿐만 아니라 피부나 눈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되기 때문에 평소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외출 전후로는 무조건 손을 꼼꼼히 씻어야 하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을 통한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호흡기 질환의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며, 귀가 후에는 외출시 복장을 벗어 세탁하여야 한다. 또한 감염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여행이나 병 문안 등의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이틀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병원을 갈 때에도 곧바로 대형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면 양성일 경우 일반 환자에게 감염을 확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대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접촉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진과의 상담시에는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 지역이나 특정 종교 및 장소 방문 여부 등도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특히 노약자는 물론 심혈관계 질환, 당뇨, 노폐물,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등을 가진 만성 질환자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NK세포 검사 및 건강 검진을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질환이 발견된다면 미리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 스스로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아울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적정 체중 유지 등에 힘써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비롯한 대부분의 감염병은 기존 폐질환이나 당뇨, 폐 등 만성 질환자에서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환 유무를 초기에 확인해 급성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기고

'풍수 문화 도시' 나주 남평의 꿈



김철성 전남도 남평과적검문소 주무관

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깃든 살아 있는 화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에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 표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발 맞춰기 위한 명분이긴 했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를 우려해 역사학계의 반발이 컸던 것도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남평이라는 지역에 붙여진 지명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 왔지만, 니체의 말처럼 우연이야말로 필연이다. 달리 불려진 지명 속에는 공교롭게도 물의 기운과 의미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에 필자는 남평을 '물의 고장'이라 칭했던 것이고, 이를 토대로 나주 남평의 꿈 얘기도 해보려 한다.

우선 어떻게 지명 속에 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백제 시대에 불려진 미동부리와 미다부리의 뜻은 저지대에 형성된 촌락이란 뜻이다. 저지대는 말 그대로, 지대가 낮아 물이 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라 시대에 불려진 현웅은, 물론 당시 주둔했던 근대의 위장이 흑색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오행 사상에 의하면 물을 상징하는 색이 바로 흑색이다. 또 고려 초기에 남평과 함께 사용했던 영평이란 지명 역시 질척이는 진

들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남평이란 지명도 서두에 잠깐 밝혔듯이 지대가 낮아 물이 차는, 낮은 들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남평은 얼마나 물과 인연이 깊었으면 장날도 물을 상징하는 숫자인 1과 5를 사용하고 있다. 읍내 강변에 건너편 산자락을 보면, 풍수의 문외한이라도 금방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다. 산세가 홀 흐름처럼 고만고만한 크기로 구불구불 흘러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남평은 물과 함께 삶의 애환을 나누면서 지명에 물의 흔적을 깊게 새기면서 강물처럼 도도한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다.

남평은 드물강도 평평이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남평 과적검문소 뒤꼍으로 난 수로를 통해 읍내 중심으로 물이 흘러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강물이 도심을 감싸고 흐르면서 풍요로운 기운을 전하고 있는 듯하다. 물의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잘사는 명품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풍수에서 물의 상징이 재물이며, 실제로 강물은 남평 들녘을 축축이 적셔 해마다 풍년을 이뤄 '왕건이 탄낸 쌀'이라는 전국을 대표하는 남도 쌀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제는 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물의 문화적 활용도에 대한 지역 사회의

행복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필자는 오랜 물의 역사를 활용한 명품 도시 만들기를 제안한다. 어떤 특정 지역을 '문화 생태 도시'로 만들고,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평은 그러한 도시 조성의 자연 조건을 잘 갖춘 지역이다. 문화 생태 도시의 기본 밑그림은 전문가들의 몫이겠지만, 전남 지역이 우리나라 풍수의 시조인 도선 국사를 배출한 고장임을 착안해 남평을 풍수 문화 생태 도시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확실적인 아파트를 지양하고 남평의 '물이 나무를 살린다'는 수생목의 상생 논리에 맞춰 풍수의 목형(삼각형) 주택을 짓고 그에 따라 건축 조례도 정비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풍수 건축은 이 시대의 독자적인 건축 문화 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심으로 흘러드는 수로를 드물강과 연계해 쾌적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수목원, 맛집, 카페, 주점,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농산물마켓, 시비와 노래비를 갖춘 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남평이 물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으면 한다.

無等鼓

이카테미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는 부잣집 안주인 조여정이 송강호를 운전사로 소개받는 대목이었다. "민는 사람 소개로 연결, 연결.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일종의 뒤편까, 믿음의 벨트?" 이런 대사에 이어 경쾌한 바로크풍 음악이 흐르는 7분간은 대사 없이 음악과 배우들의 연기, 빠른 장면 전환, 편집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몰입감을 높인다.

얼핏 이미 존재하는 클래식처럼 들리는 음악은 정제된 음악 감독이 작곡한 '민음의 벨트'다. 그는 이 곡에 대해 '바흐가 들었다면

영화음악의 힘

간짜 놀랄 영타리 바로크 음악'이라 말하기도 했는데 평상시에 들어도 참 좋다.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오랫동안 영화를 기억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영화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상업작 중에서도 '음악'이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대표적이다.

18세기 영국의 외딴 섬을 배경으로 결혼을 앞둔 귀족 아가씨와 그의 초상화의

력을 받은 화가의 사랑을 담은 이 영화는 섬세한 스토리와 연기, 화면 등이 인상적이다.

간영화제에서 '기생충'과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쟁했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줄곧 음악 없이 진행되다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이 평상 잊지 못할 '강력한 한 방'을 터트리다. 아마도 영화를 본 이들이라면 앞으로 '이 음악'이 흐를 때면 바로 주인공들의 아린 사랑을 떠올릴 것이다.

영화 '작은 아씨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떠난 셋째 베스가 연주하던 피아노에 앉아 누군가가 배 토벤의 '비창' 2악장을 연주하는 대목에서는 코끝이 찡해진다. 또 '침묵의 소리'('Sound of silence')나 '스카보로의 추억'('Scarborough Fair') 등 사이먼 앤 가펄클의 노래가 줄곧 흐르는 '졸업' 역시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나들이가 어려워 지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거나, '필경 리스트'에 올려 두고 언젠가는 꼭 만나 보시길.

/김미은 문화부장mekim@